



2020년 8월 23일(제996호) 연중 제21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믿는 바를 실천하십시오.”

사제서품식은 오랜 시간 사제양성을 받은 신학생들이 통과해야 할 마지막 관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신자분들의 기도와 축하 속에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기쁨과 축하가 가득한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서 서품을 받은 저는 무거운 책임감 또한 동시에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주교님께서 사제서품 후보자들을 한 명씩 호명하시고는 사제직의 고귀함에 대해 말씀하시며, 그리스도를 따름에 충실할 것을 훈시하십니다. 어찌 보면 후보자들을 향한 당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 제 뇌리에 꼭 박힌 내용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법을 깊이 묵상하며, 읽는 바를 믿고, 믿는 바를 가르치며, 가르치는 바를 실천하십시오.’라는 대목입니다. 이를 요약한다면, ‘믿는 바를 실천하십시오.’라고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참모습은 바라보지 못한 채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이해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물음에 제자들 중 으뜸인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본질을 꿰뚫어 대답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고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 가톨릭교회의 초대 교황이 되어 온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가방끈도 짧고 다혈질이며, 심지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인물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과연 어떤 것 때문이었을까요? 베드로는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지만, 그는 믿는 바를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고백한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이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활 동안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실천하려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믿는 것,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늘 나라로 가는 키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지만 하지 않고, 믿지만 실천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실에 타협하고, 불의 앞에 눈을 감아버립니다. 하지만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열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김경욱(미카엘) 신부
환성대(10집비전) 성당 주임

제 1 특 시 회답송 제 2 특 시 복음 보호송

- 이사 22,19-23
- ◎ 주님, 당신 자애 영원하시니, 손수 빚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 로마 11,33-36
- ◎ 알렐루야.
-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

복음 영성제송

- 마태 16,13-20
-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최해성 요한



성인명: 최해성 요한 (崔海成 John)

신분: 회장, 순교자

활동연도: 1811-1839년

‘양박’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던 최해성(崔海成) 요한은, 1839년에 순교한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의 먼 친척이다. 어려서부터 교리를 배우면서 성장한 최 요한은 성격이 온순하고 정직하였다.

최 요한은 천주교의 모든 본분을 이행하는 데에 뛰어난 열성을 보였으며, 언제나 자신의 영혼을 보살피는 일에 전심하였다. 그는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자신보다 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애금을 잊지 않았다. 그가 건진 성사를 받은 뒤에는 성령 칠은의 특을 충만히 받은 징표가 나타났으며, 이내 그의 마음은 순교의 뜻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1839년의 기해박해가 일어나자, 최 요한은 먼저 부모와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다. 그리고 교회 서적을 가져오려고 다시 집으로 갔다가 체포되고 말았다. 포졸들은 쇠도리끼로 그를 때리면서 ‘교우들이 있는 곳을 대라.’고 강요하였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 굴하지 않았다. 그의 몸은 이내 상처투성이가 되어 가늘 수조차 없을 지경이 되었지만, 그는 영혼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타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원주 관장 앞으로 끌려간 최 요한은 다시 문초와 형벌을 받으면서도 ‘형제들을 고발할 수 없다.’고 용감하게 대답하였다. 관장이 ‘네가 사악한 종교를 믿는다니 정말이냐?’라고 하자, 그는 “저는 사악한 종교를 믿지는 아니합니다. 하늘의 주님을 섬기는 천주교를 믿을 따름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후에도 최 요한은 자주 옥에서 끌려나가 감사나 영장 앞에서 수없이 많은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 와중에도 그는 불평하지 않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도움만을 청하였다. 어느 날 그는 다시 관장 앞으로 끌려나가 문초를 받게 되자, 이렇게 대답하였다.

“제가 지금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한다면, 제 영혼은 영원히 죽을 것이므로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임금과 의(義)를 위해 죽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배반하는 백성이 있다면, 그는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위대한 하느님을 섬기겠다고 맹세한 제가 어찌 형벌을 두려워하여 이를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관장은 화가 나서 그에게 혹독한 형벌을 가하도록 하였다. 최 요한의 몸은 다시 피투성이가 되었고 살은 갈기 갈기 찢어졌지만, 하느님의 사랑으로 불붙은 그의 영혼은 기쁨으로 용약하였다. 옥으로 돌아온 최해성 요한은 일시적으로 유혹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우리 주 예수님의 발아래 엎드림으로써, 인성의 나약함을 억누를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오래지 않아 기쁨과 평화가 다시 그의 마음에 찾아왔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마침내 참수형을 받아 순교하였으니 이때가 1839년 9월 6일(음력 7월 29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28세였다.

복 음 록 상

- 배영길(비드로) 신부 / 예수회



내 마음자리

뒹대고, 헤어지고, 찢어진
그래서 무엇이
원래의 모습인지조차
알 수 없는
웃입니다.

내 마음자리지요.

상화이야기 베드로 성인에게 천상의 키를 건네주시는 예수님



피에트로 페루지노, 1481년 제작
프레스코화, 330 x 550cm / 비티칸, 시스티나 성당

본 그림의 기원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상의 열쇠를 맡기신다는 구절이다. 마치 무한한 공간처럼 보이는 이 광장에 3개의 건물이 그려져 있는데, 중앙의 8각형 건물은 성스러운 공간인 예루살렘을 상징한다. 그림 정중앙에 예수님이 오른쪽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베드로에게 황금과 은으로 된 두 개의 열쇠를 넘겨주시는 모습이 보이며, 그 좌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필하고 있다. 그림 속 광장 중앙에서 보이는 것은 예수님의 체포 장면과 성전에서 상인들을 쫓아 내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성전 밖에서 돌로 치려고 했던 장면들이다.



세부도1

아직 초기 르네상스 시기라는 것을 고려해보면, 공간묘사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배경에 번잡하게 그려진 인물들의 묘사에도 불구하고, 라파엘로의 스승답게 우아하고 고요한 그림이 차분한 분위기를 불러일으킨다.



세부도2

김은혜(캘리시맷)

교 구 소 식

군중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21주일: 칠벽 김세영 신부

◆ 교구장 동정

- 국장회의
 때·곳: 8월 25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신임신부 방문

- 때: 8월 26일(수), 용성대 성당
 8월 27일(목), 인천해군 & 청룡세라핌 성당
 8월 28일(금), 은성대 & 천성대 성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빌사추를 따르라” -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21,19)